

수석합격기
[제29회 법원행시 수석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포기하지 않는 자세



박 병 준

- 1985년 9월 생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4년 재학
- 제53회(2011년) 사법시험 합격
- 제29회(2011년) 법원행정고시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4학년 박병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힘을 내곤 했었는데요. 제가 적는 이 수기가 또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빌어 봅니다. 법원 행정고시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적고 또한 정보도 쉽게 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밑에서는 법원행정고시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I. 법원행정고시 제1차 준비

일단 저 역시 사법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법원행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7월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7월초에 고시반 입실시험을 보았기에 그때까지는 사법시험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해왔고 본격적인 법행 준비는 7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7월부터 법원행시를 준비했다 해지만 약간의 변화 빼고는 공부는 대동소이한 것 같네요. 그중에서 제가 사시와는 조금 다르게 준비한것이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대법원 관례 요약본이 매월 1일과 15일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2009 1월분량부터 매일 1회~2회를 뽑아 하루에 2번 읽고 중요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거기에는 행정법분야와 특허법분야가 합쳐진데다가 민사에는 상법분야도 있어서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서 8월중순쯤에 올해 7월분량까지의 관례를 모두 읽었구요. 시험전일까지 2번정도 더 읽어서 총

5번은 읽은것 같아요. 제 수험기간이 짧은 데다가 비법인 탓에 저는 여러번 읽어야했지만 어느정도 공부가 되신분들은 각자의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시험결과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민법에서 2개를 틀린 탓에 헌법 7개 형법 5개를 틀리고도 붙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판례 요약문을 계속 읽었던 것이 특히나 민법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시험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행바이블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시를 처음 시작할때는 법행바이블을 풀면서 경향을 읽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구요. 또한 거기에 적혀있는 저자의 글들은 눈여겨 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법행바이블에 보면 헌법에서 국가배상법분야가 출제가 안되고 있다고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저자의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2책형 1번문제에 국가배상법이 나왔습니다. ^^; 물론 우연이지만 기출의 경향과 분석은 물론 자신이 혼자 가능하다면 혼자하는것도 좋겠지만 다년간 기출을 분석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것은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기출은 항상 옆에 두고 푸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 다른 문제집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기도 하지만 잘 보지 않는 편인데요. 기출은 항상 푸는 성격입니다. 약간은 꼼꼼한 탓에 시험기간에 도입한 경우가 아니고 여유가 있다면 기출의 지문하나하나를 다 스스로 찾아 책에 표시를 (저같은 경우 기출을 사이트에서 직접 프린트를 해서 푸는 편입니다) 하다보면 책도 익히게 되어서 자

연스레 책에서 어느곳에 강약을 뒤야 한다는것도 익히게 되더군요. 그리고 시험 3주인가? 2주인가? 전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법원행시 06년도부터 09년도 기출과 사법시험 10년도 09년도 08년도 07년도 06년도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특히나 토요일에는 더욱 집중해서 해야한다는 생각에 정말 자리를 잡고 풀었구요. 여러번 풀다보면 다들 하시겠지만 한문제를 풀어서 맞다고 해서 다음번에 그문제를 풀면 무조건 맞는것은 아닙니다. 워낙 광범위한 범위이다보니 여러번 풀다보면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전 그것이 제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개를 한번씩 보는것보다는 하나를 여러번 보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것요. 그리고 여러번 보아야 할 것은 가장 시험에 근접해있는 기출이라는것 말입니다.

또하나 법원행시만의 가장 큰 팁은 저도 이번 시험을 보고나서 알게 된 것인데요. 보통 사법시험의 경우 판례와 현재의 법령이 모순되는 문제는 안 내게 마련이죠. 하지만 법원행정고시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는 판례에 의함이라고 적혀있죠. 이때 과연 어떤 답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게 마련입니다. 법령을 틀리다고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원행시는 그래야 하는것 같습니다. 문제에 판례에 의함이라고 적혀있고 비록 현재 법령이 개정되어서 현행 법령과는 모순되더라도 판례에 따라 옳은 지문을 선택해야합니다. 특히나 올

해 문제에 형법과 헌법에서 판례의 내용이지만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과 모순되는 문제가 나왔죠. 억울하게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엔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체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행시는 시간이 부족하여 보통 짧게 읽고 답을 찾으려면 넘어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제 스타일). 비록 저 같은 경우도 그런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2문제정도를 틀리게 되었지만..그건 시험이 아니라 평상에 볼 때로 생각해야 되구요. 법행은 워낙 시간도 짧은데다가 명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정신력도 2시간동안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읽어서도 속독이 되시는 분들은 저 스타대로 문제를 푸실 필요가 없겠지만.. 그리고 저의 경우 문제를 다풀고나서 25분정도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좀더 꼼꼼히 볼 걸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마킹하는데에 남은 시간이 다 소모되었으니까요. 법원행시의 경우 120문제를 하나의 답안지에 옮겨야 하는데 그 칸이 싸인펜을 한번 그으면 차는 정도입니다. 즉 마킹실수를 하기 쉬운데다가 실수로 손이라도 떨면 답안지를 교체해야 되죠. 하지만 그건 거의 모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틀린대로 내는게 나올지도 모르죠. 즉 법원행시에서 마킹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정확도를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빨리 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시험장에서의 팁인데요. 시험

시작30분전에 시험실에 들어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방에 공부자료를 다 넣어서 앞에다가 내야되는데요. 시험 시작10분전인가?까지 화장실을 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30분전에 들어가서 가방 내라고 하면 자기가 볼 자료를 들고 밖에 나와서 10분전까지는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것 같더군요.

III. 제2차 초시 준비

법원행정고시 1차 합격을 알게 된 이후에 고민이 생기더군요. 2차 준비인가? 아니면 우선 사시1차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실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민.형 기본 과목을 공부하여 1차 준비를 놓지 않되, 사례집을 보아서 2차 준비도 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였지만 1차를 합격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이시기는 공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초 법원행정고시 2차 준비를 할 때 까진 사실상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매번 책상 앞에서 줄거나 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행정법 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웬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조문을 찾아서 조문만 적었구요. 민법과 형법은 그래도 사례집등은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공부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합격후 들뜬 마음에 시간을 쉽게 허비한 것 같아 1차를 합격하더라도 2차가 끝날때까지 긴장을

놓아서 안된다는 생각을 이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점수 발표가 났을 때 의외로 형법과 민법에서 컷트라인을 넘는 점수가 나온 것을 보고 2차를 맘먹고 준비해볼걸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하지만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었고, 게다가 오히려 2차 공부라는 것이 1차 공부와 크게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V. 사법시험 제1차 및 제2차시험 준비

법원행정고시2차 시험을 끝내고 다시 사법시험 1차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기본 3법의 경우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고 붙으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2차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를 남겨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끝나고 며칠 쉬지 않고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차준비라서 후4법을 제대로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례집을 한권씩 정해서 그 책 한권만 읽어다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정말로 아는 것은 최대한 분량을 뽑아내고 모르는 것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조문을 분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V.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 준비

사법시험 2차가 끝난 후에 법원행정고시 2차까지 4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때 사법시험 2차를 마친 후에 법원행정고시 2차는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습니다. 법원행시

의 경우 2과목이 빠지는데다가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마다 한과목을 보던 경험이 남은 시간을 아주 많다고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는 조금 여유롭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법시험 1순환 형사소송법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다보니 제가 가진 실력이란게 보잘 것 없다는 것과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동차준비이기 때문에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례집을 위주로 중요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새로 공부를 하는 동안은 사실상 기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공부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쫓기 듯이 한 과목씩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재상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책을 전체적으로 단권화 하면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특히나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대세를 따르는 편인데 이재상 교수님 저가 대세이긴 하지만 기본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재상 교수님 책을 기본서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책들, 사례집이나

노명선교수님의 판례집 등을 보면서 책에는 없는 논점이나 판례등을 책에다 추가하면서 저만의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법원행시의 경우 단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흐름에 따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교수님 책을 보는 것이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아니었지만 과거 기출을 보면 2문에서 50점 짜리 단문이 출제되었는데요. 이번시험에도 그런 경향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저는 기존의 기출단문을 전체적으로 체크한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책에 있는 큰 주제들로 단문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라 기존 기출을 제외한 형사소송법에서 나올만한 단문을 한 20개 정도 추려서 책에 표시해두고 목차를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단문의 경우 내용을 다 외울순 없지만 흐름에 따라 목차를 암기해두면 답안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시험에는 기존 경향과 다른 시험문제가 나왔지만 그래도 단문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법원행시를 준비함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가장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사시의 경우에는 행정법이 과목의 어려움과 달리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는데다가 논점을 10점의 배점당 하나정도씩으로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안 구성만 할 줄 알면 되지만 법원행시의 경우 문제 하나를 주고 50점의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정법 전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답안구

성이 되지 않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행정법문제는 판례 사안을 그대로 문제로 내게 되는데 해당 판례를 알지 못하면 사안포섭단계에서 틀어져 전혀 엉뚱하게 답안 구성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그나마 박정훈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집을 보면서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요. 가능했다면 박군성 교수님의 행정법 기본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집을 보았는데요. 박정훈 교수님의 사례집을 보면서 행정법의 많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문은 정선균 강사님의 핸드북에 나와있는 논점들이 있거든요. 법행 바이블을 보면 기존에 나와있는 기출들을 적어놓으셨는데 한번 보시면 정선균 강사님 핸드북에 있는 논점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핸드북을 보고 단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끝날 때까지 판례에 대한 두려움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타 과목과 달리 행정법의 경우 판례를 제대로 챙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교수님들의 책을 해당부분의 판례를 확인하면서 평소애 읽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법시험은 그럴 필요없이 리딩 케이스만 알면 대부분 해결 되지만 법원행시는 50점사례에 적법 요건과 본안 요건의 사안 포섭을 해당 판례를 알고 있으면 쉽게 고득점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이번 시험은 단문으로만 출제되었

다는 것을 말씀드리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판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구요. 다음 시험에서는 사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경우 저는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음.. 일단 이창한 강사님 책 좋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사례집의 경우 답안 구성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의 경우 기판력까지는 설명이 잘되어있는데 다수당사자 소송 부분등은 판례 분석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판례에 대한 분석이 교수님들마다 다른 점도 하나의 이유겠지만요... 법원행시에는 기판력 이후의 부분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게다가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더 보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홍엽 교수님의 책이 판례분석이 잘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책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김홍엽 교수님책을 참고로 하여 통합에다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필히 김홍엽 교수님 민소책을 참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민소법도 단문이 출제됩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단문을 참고로 하여 기출될 것 같은 단문을 분석하였구요. 해당 단문의 목차를 암기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민법과 형법의 경우 타 과목에 비해 준비가 수월하였습니다. 일단 이 두 과목은 단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례로만 출제되는 경향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서 민법의 경우 저는 노재호 판사님의 교안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교안의 사례의 제목들을 사인펜으로 지우고 사례문제 보고 목차잡는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단문은 출제 되지 않지만 그래도 논점에 비해 점수 비중이 사시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보고 요건이나 효과등을 뽑아서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위주로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2차 책을 이인규 강사님의 책으로 정해서 기본서로 하고 하태훈 교수님의 사례집을 보았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논점의 조문과 분석 그리고 관련 판례를 적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 해당 논점을 잘 찾지만 하면 점수 획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구요. 특히나 관련 판례를 논리적으로 암기하고 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VI. 답안 구성

법원행정고시의 경우에는 사법시험과 달리 답안 구성에 있어서 학설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분량을 채워야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판례가 없고 학설대립이 매우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면 학설대립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단 해당 논점에 관련 된 조문을 적어서 작성자가 이 논점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첫날 세과목을 시험을 보고 두 번째 날 두과목을 시험을 봐서 이틀에 끝나기 때문에 첫날 체력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2차 시험은 경험자는 아시겠지만 매우 많은 체력을 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VII. 제3차시험(면접시험)

사법시험 3차의 경우는 면접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토론을 해본 경험이 실제 3차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발언을 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집단 면접에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하시면 개인 면접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시의 경우 2차에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정하기 때문에 3차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을 하였었는데요. 다행히도 3차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3차 시험에서는 프리젠테이션도 없어져서 집단면접 1시간 정도와 개인면접 10분 정도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특별하게 준비를 할 것은 없지만 해당 시기에 있어서 사법부와 관련된 고민들을 평소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올해에는 집단면접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에 대한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고, 개인 면접에서는 신상질문과 간단한 법률질문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VIII. 마치면서

지난 수험기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던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험을 그저 앞에 두고 보이지 않는 길을 막연하게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힘이 들었던 그러한 길이 결국은 지름길이었고 합격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합격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시험장에 들어간 것은 저이지만 시험을 준비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이 함께였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응원 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고생했던 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데 큰 힘을 주었던 작은아버지께도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